

세상의 소음 음악으로 들리는 마법

한숙현 음악에세이 '음악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출간

한숙현의 음악에세이 '음악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가 출간되었다.

위대한청춘70년, 시살내악, 연애의정적 등 다양한 기획공연에서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뉴미디어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한숙현 박사가 음악에 대한 잡학다식의 간추린 정보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한숙현 박사는 클래식 악기 플루트를 전공했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음악에는 클래식 등의 특정 장르가 아니라 다양한 장르가 서로 혼용하고 조용하면서 감동을 이끌어낸다는 사실에 착안해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 광고음악, 현대음악, 케이팝, 힙합, 블루스, 명상음악, 치유음악 등 모든 음악장르와 영역을 망라하도록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음악상식을 주제별로 나누어 지루하지 않게 써내려가고 있다.

이 책은 크게 정치권력과 음악, 유혹하는 음악, 음악은 진화한다, 생명을 약동시키는 음악, 음악은 인간관계의 윤희유,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치유에 미치는 영향 등 7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의 첫 장을 여는 순간, 독자들은 세상의 소음들이 모두 음악으로 들리는 신비함을 체험하게 된다. 음악에는 아름다운 멜로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의 삶과 메



한숙현의 음악에세이 '음악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시지와 철학과 역사와 희로애락이 담겨 있기에 음악을 알면 시간 안에 갇힌 삶을 두 배, 아니 수십 배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한숙현 저자의 지론이다.

한숙현 박사는 이 책을 발간하게 된 동기에 대해 "우리 주변에서 음악을 너무도 흔하게 접할 수 있기에 오히려 음악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우리 사회에 어떤 자극을, 인류 평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잠잠한 의식을 깨뜨려 음악에 다시 관심을 갖게 하는데 진정한 목적을 두고 있다. 정제되고 정화된 순수음악뿐만 아니라 지역색이 강한 민속음악, 현대 물질문명과 인간성을 담은 현대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의 영향을 소개함으로써 음악을 향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고 설명한다.

전쟁 중에도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을 연주하며 휴전할 수 있고, 에스토니아처럼 국민 전체의 합창으로 러시아 침공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위대한 음악이 들려주는 매력적인 세계로 빠져보는 것이 어떨까?

한편 이 책을 출판한 '리음박스'(대표 김종섭)는 "행복은 발견하는 자에게 오는 것처럼, 음악도 그 의미와 가치, 작곡가의 메시지 등을 알아가는 것도, 삶을 행복으로 채색하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살아가는 동안 음악의 사위를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 책을 통해 음악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해보자. 생각만 바꾸면 잔소리도, 코풀이도 리듬으로 변할 수 있다. 이 책은 생각의 대전환을 일으켜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해줄 것을 확신한다.

이 책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에서 작지만, 큰 행복으로의 길을 안내해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자, 이제 행복으로 떠나보자. /김재훈 기자

수채화가 김영숙 개인전 '담다' 개최

고창문화의전당서 28일까지 일상생활·자연 담은 '꽃' 작품 전시

고창에서 활동하는 김영숙 작가의 개인전이 고창문화의전당 전시실에서 오는 28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일상생활과 자연을 담은 '꽃'을 주로 작업한 서정적이고 섬세한 감성을 담은 수채화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작가는 고창군 아산면의 '힐링나귀 아뜰리에'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2016년 제8회 대한민국수채화공모대전 특별상 수상 시작으로 2016년 제17회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입선, 2016년 제17회 신사임당미술대전 특선, 2017년 제49회 전라북도미술대전 입선, 2019년 제6회 대한민국미리인예술대전 특선 등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23년 7월에는 강원도 출신 여성 작가의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전시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강릉에 위치한 (재)한국여성수련원 갤러리 '솔'에서 기획전시를 갖기도 했다.

7년간 용인에서 귀농한 작가는 작은 텃밭에 푸성귀와 함께 여러 가지 꽃들을 심고 가꾸며 피고 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산문집 'blossoming'을 발간하기도 했다.

김영숙 작가는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작품 속의 수줍은 백일홍, 열정의 장미, 교혹적인



모란꽃들의 향연을 만끽 즐기고 꽃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숙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는 지난해 국립대학 최초 전국 단위 아마추어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최근 제1회 전국 아마추어 음악콩쿠르 시상식과 입상자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국립군산대 전국아마추어 음악콩쿠르 시상식·입상자 연주회

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는 지난해 국립대학 최초 전국 단위 아마추어 경연대회를 개최하였고, 최근 제1회 전국 아마추어 음악콩쿠르 시상식과 입상자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음악과장 이현주 교수는 "국립군산대와 놀라운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지역예술인과의 교

류가 앞으로 고등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예술 허브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 대회는 매해 개최되며 최우수상 입상자에게는 국립군산대학교 음악과에 진학시 총장등록금 혜택이 주어진다. /군산=김판곤 기자

"국가유산 가상현실로 체험 가능"

문화재청 '지식이음' 새 단장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지식이음' 웹사이트를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유산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별 콘텐츠가 추가됐다.

검색기능과 편의성을 개선해 연구정보를 자유롭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테마 콘텐츠' 메뉴가 새로 선보인다. 연구자에 초점을 맞춘 기존 학술정보 중심 서비스에서 일반인도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국가유산 VR산책, 문화유산 돋보기(미술유산 갤러리), 교과서 속 국가유산, 기록관 온라인 전시, 연구원 소장유물, 부석사 조사당 벽화 디지털 복원, 문화유산 찾아-zoom, 일제강점기 고적조사 등 총 8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국가유산 VR산책에서는 국내외 주요 발굴 현



국가유산 지식이음 웹사이트 메인화면 (사진=문화재청 제공)

장이나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드론과 360도 카메라로 촬영·편집한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제공한다. 고고학적 조사현장 콘텐츠 위주로 운영되어

온 기존 '360VR로 보는 우리 문화재'를 국가유산 전 분야를 아우르는 콘텐츠로 통합·확대(69건→81건)하고 국가유산 VR산책으로 변경됐다.

문화유산 돋보기는 다양한 미술유산 자료를 감상할 수 있다. 4개 주제로 구성된다. 초상화 갤러리에서는 개인과 문종, 사립기과 등이 소장한 국보·보물 초상화 36건 57점의 고화질 사진과 국·영문 해제 등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석비비문 갤러리와 패블 갤러리에서는 국보·보물로 지정된 석비 24건과 패블 54건의 고화질 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

타본 갤러리에서는 한국 서화가 오세창(1864~1953)이 편찬한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근역서화집'에 수록된 조선시대 서예가들의 석비 글씨 50건을 볼 수 있다.

보고서 등 첨부문서 자료도 내용 검색도 가능해졌다. 필요한 자료만 선별해 찾을 수 있도록 조건검색이나 검색필터 기능이 추가됐다. 이 외에도, 고려 금속공예 삽화 등 연구성과물 7000여 건이 출처표시를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됐다. /뉴시스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 때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처: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